

치홀리 가든 앤 글래스 음성 투어 안내문

환영합니다

카일 맥라클(Kyle MacLachlan), 배우: 안녕하세요, 저는 카일 맥라클런입니다. 여러분을 치홀리 '가든 앤 글래스' 전시회에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성장한 저는 어린 나이에 예술적 영감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기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에메랄드 시티의 시애틀 센터 캠퍼스는 오랫동안 거주민과 방문자 모두에게 예술의 근간을 제공해온 만남의 장소입니다. 시애틀 오페라, 심포니 그리고 발레, 시애틀 국제 영화 페스티벌, 시애틀 레퍼토리 그리고 어린이극장의 고향인 이 도시 중심부에서 예술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홀리 '가든 앤 글래스' 전시회를 주최하게 되어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의 시각 예술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북서 지역 출신 예술가로서 유리 공예가로 가장 잘 알려진 데일 치홀리는 예술 소재의 경계를 허물음으로써 중요한 예술 형태의 관점을 변경하였습니다. 데일은 그의 전시회를 세계와 공유해서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예술 작품이 그 지역 특성과 어우러져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많은 이야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제프 라이트(Jeff Wright), 치홀리 가든 앤 글래스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치홀리 전시관의 수석 파트너인 제프 라이트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데일을 여기 시애틀 센터로 초빙할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을 때, 데일의 이름이 맨 처음 떠올랐습니다. 데일 치홀리 - 전 세계에 자신의 예술을 보여준 진정한 북서부 출신 예술가이며 저희가 초대하게 되어 정말 기쁜 예술가.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예술가: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 치홀리입니다. 저는 라이트 가족의 초대로 제 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전시회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분이 제가 항상 원하던 것을 요청하셨고, 저는 항상 전시회에 유리집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설치하고 싶다고 응답해왔기 때문에 제게는 정말 그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날이 와서 제 평생의 작품을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어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전시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글래스 포레스트(GLASS FOREST)

데일 치홀리: 저는 1967년에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네온(Neon)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유리 설치 작업은 막 시작한 정도였고, 아마 1970년 정도에 제가 제이미(Jamie)와 함께 작업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임스 카펜터(James Carpenter), 건축가, James Carpenter Design Associates Inc.: 저는 제임스 카펜터이며 여기 뉴욕에 거주하는 조각가이자 건축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이유는 저희 둘이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의 의미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데일 치홀리는 식물과 실내디자인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제 경력은 건축학을 공부하였고 조명과 조각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재가 할 수 있는 가지가지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70년대 초반에 완성되었는데, 이 작품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작품을 보시면 이 작품은 우리가 유동적인 물질로서, 그리고 또 그 유동성에 대한 감각과 그것이 취하는 유기적 특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이 작품들은 화로에서 흰 유리 상태로 꺼내 모은 단순한 형상을 들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유리를 그냥 흐르도록 두어 생성된 형상입니다. 그 조각들 안에는 네온을 넣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예술가들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물질로 작업하는 데 아주 관심이 많았던 과거였습니다. 아마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노스웨스트 룸(NORTHWEST ROOM)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제 생각에 그 시기는 제가 이탈로 스캥가(Italo Scanga)와 제이미 카펜터와 함께 워싱턴주 역사 소사이어티를 방문했던 1977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는 인디언 바스켓 컬렉션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제게 "이 바스켓을 유리로 만들어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스켓들은 낡고 주름투성이였으며 모양이 똑바르지도 견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스켓을 어떻게든 비대칭형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바스켓을 큰 주걱 같은 도구로 두들겨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로의 열과 불만 사용해서도 불 자체에서 같은 종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작품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제게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불, 중력, 열 그리고 원심력을 사용한 유리 성형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소재에 단지 사람의 숨결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소재에 숨결을 계속해서 불고 또 불어 넣어서, 더는 커지지 않을 한도까지 부풀게 하여, 정말 얇고 뜨겁게 만들어서 거의 접을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얇을 수 있는 정도와 접을 수 있는 정도의 한계치에 도전하여 새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록 허스카(Rock Hushka), 큐레이터, 타코마 예술 박물관, 현대 및 북서부 예술품 담당: 유리 바스켓을 자세히 보고 그 바스켓에 그려진 섬세한 그림에 주목하신 후 트레이드 블랭킷(Trade Blanket)을 보시면 그 모양, 색상 및 질감에 있어 현저한 동일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데일은 자신이 그 모양을 본뜬 유리 용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러 다양한 미국 원주민 문화로부터의 역은 모양과 양식을 반영하는 패턴을 자신의 유리에 만드는 능력을 통해 그 자신의 명성에 기폭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라이프 룸(SEALIFE ROOM)

파블로 슈구렌스키(Pablo Schugurensky), 예술 고문: Sealife Room 갤러리의 모든 작품은 데일의 바다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북서부에서 성장한 그는 항상 바다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Sealife 작품은 치홀루 작품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고, 가끔 Chandeliers and Towers에서만 나타납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저는 Sealife Tower를 20피트 높이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바다 생물 찾기를 즐길 것을 희망하면서 그것들을 여기에 많이 포함했습니다.

록 허스카(Rock Hushka), 큐레이터, 타코마 예술 박물관, 현대 및 북서부 예술품 담당: Sealife Tower의 모든 구성 요소는 데일의 유리에 대한 특성, 즉, 그 유동성, 바닷물처럼 흐르는 성질, 그리고 타워 위에서 움직이는 해초 같은 요소, 조류를 따라 움직이는 생물체 등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녹은 유리가 뜨거운 작업장에서 중력이 끌어당김에 따라, 그리고 유리를 부는 공예가가 유리를 비틀고 돌려서 유리가 흐르도록 두는 방법에 따라 그 모양이 창조됩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저는 제 작품에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기 위해 Sealife Tower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만들 때 즐겼던 만큼 여러분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실링(PERSIAN CEILING)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페르시아 시리즈는 저의 페르시아 유리, 로마 유리, 그리고 이집트 유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절친한 친구인 마틴 블랭크(Martin Blank)가 필척(Pilchuck)에 왔을 때, 저는 그가 몇 명의

다른 예술가와 함께 작업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저희가 작업하는 옆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조각의 여러 축소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틴 블랭크(Martin Blank), 조각가: 원래 페르시아 시리즈는 패턴과 색상에 대한 탐구 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바다 객체로부터 조개껍데기 안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로 변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삐죽 삐죽 튀어나온 기괴한 모양의 스누터(Snooter)가 탄생하였습니다. 데일과 작업에 있어 제 역할은 실험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리 작업은 그 조절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경계에서 벌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진정한 페르시아를 창조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뜨거워지면서 너무 얇아져 자체로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아 시시한 납작한 모양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창조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Persian Ceiling을 제작할 때 저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밑으로 걸어가서 위를 쳐다보게 되면 갑자기 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지? 그리고 어떤 기분이 들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밀레 피오리(MILLE FIORI)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저는 수많은 데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어머니가 소유하셨던 정원에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름다운 진달래와 철쭉을 키우셔서 저는 아름다운 자연 형태의 꽃으로 둘러싸인 그 정원에서 놀곤 하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 생각에 색상에 관련해서도 제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많은 조형물이 검정 플렉시 글라스, 즉 반사 표면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사 소재로 작업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는 제게 판이한 작업 방법을 제공하고, 작품의 주변에서 바라보면 보는 방향에 따라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스테파노 카탈리니(Stefano Catalini), 벨뷰(Bellevue) 예술 박물관 예술 감독: 제가 2003년에 타코마 예술 박물관에서 밀레 피오리(Mille Fiori)를 맨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은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타코마로 운전해서 갔지만, 그 갤러리를 들어갔을 경험은 정말 제 예상 이상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거기에는 색상의 폭발, 원색, 노랑, 파랑, 빨강 그리고 많은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 형태들은 정말 자연스러웠으며, 그들은 친환경적이었지만, 결코 자연 생물의 복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생명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이 형체들은 핀란드의 누타야르비(Nuutajarvi), 아일랜드의 워터포트 크리스털, 그리고 멕시코 몬테레이에서의 제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15개 또는 20개의 서로 다른 모양으로 구성된 시리즈입니다.

스테파노 카탈리니(Stefano Catalini):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밀레 피오리(Mille Fiori)는 재미있는 작품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밀레 피오리"는 "1,000개 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의미는 직접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닌, 꿀의 종류입니다. 이는 벌이 종류의 한 종류의 꽃이 아닌 많은 꽃, 즉 1,000개의 꽃에서 꽃가루를 수집하는 일 년 중의 기간을 말합니다. 저는 데일의 작품 제목에서 꿀에 대한 언급이 아주 경이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원색으로 창조한 꽃줄기와 덩굴손 같은 형체가 꿀의 유기적인 점성 형태가 자연과 생물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이는 또한 유리 불기 과정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 모양을 실험하고 새로운 형태를 개발할 때 그 형태들은 종종 자연에 속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유리 불기 과정과 제가 지난 과거에 방문했던 장소에서 받은 영감의 혼합물입니다.

이케바나 앤 플로트 보트 (IKEBANA AND FLOAT BOAT)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저는 항상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태평양 북서부 바닷가인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아이 때 저는 해안가에서 물건을 줍곤 했는데 그때 일본산 낚시찌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핀란드에 갔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다에 유리를 던진 후 이를 핀란드의 노 젓는 배를 타고 다시 꺼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리 워드(Gerry Ward), 보스턴 미술관, 미국 및 장식 미술 및 조각 미술, 명예 큐레이터: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이 조형물 안에 있는 이케바나 앤 플로트 보트(Ikebana and Float Boats)는 1990년대 중반 데일의 핀란드 누타야르비(Nuutajarvi)에서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기 머무는 동안 가까운 유리 공장 근처의 작은 강 다리에서 커다란 유리 물체를 떨어뜨리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십 대들이 그 유리 조각을 집어서 작은 노 젓는 배에 실어 다시 강변으로 가져오면, 데일은 그 유리를 꺼내서 다시 던지고는 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데일은 그 나무로 만든 배에 실린 유리가 보이는 모습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 그의 성공적인 조형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의 모든 상상력을 일깨우며 사람들에게 큰 기쁨도 주고 있습니다.

드로잉 월(DRAWING WALL)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저는 1976년에 사고를 당한 후에도 한동안 계속 유리를 불고 있었지만, 이전처럼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었고 왼쪽을 잘 볼 수가 없어서 항상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저의 깊이 감각이 좋지 않아졌는데 이는 제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주변 사람들을 잘 볼 수 없을 것으로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제 그림의 진정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수록 이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 그림은 때로는 유리에 관한 것이었고, 때로는 그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이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제가 유리를 부는 동안 제 몸과 마음이 창조적으로 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키키 스미스(Kiki Smith), 예술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일은 자기가 활동하는 곳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저는 그가 작품을 만든 후 이를 보고 감상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 행동으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내고, 색상을 보고, 이를 통해 형상도 생성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도하고 또 반복해서 시도하는 물리적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때로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창조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아주 처음부터 제 유리가 완성되었을 때 아주 빨리 그림도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래파이트 연필로 Seaform 및 Persians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Venetians 작품에서는 석탄으로 바꾸었고, 그 후부터는 색상, 아마 처음에는 수채화로 시작해서, 액체 아크릴화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Golden Acrylics에서 액체 아크릴화 재료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약 10년 전부터는 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액체 아크릴화 재료는 이 회사가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물감을 짜내서 그림 용기에 뿌려 넣기만 한 후 이를 사용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스펀지, 붓, 걸레 및 빗자루 등을 옆에 두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이 제 창조물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제 작품이 현재 속도처럼, 현재의 방향으로, 발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이야말로 제 작품의 주요 요소입니다.

상들리에(CHANDELIERS)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저는 어느 날 아침 깨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도시인 베니스의 운하에 상들리에를 걸고 싶다"라고 말하고는 이를 위해 1992년에 시애틀 예술 박물관에 Chandelier 시리즈를 시작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전시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한쪽 구석 공간이

있었는데 저는 전시회 시작 10일 전에 상들리에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 여행 중에 바르셀로나의 한 레스토랑에서 상들리에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상들리에는 건물 천장이 낮아서 눈높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상들리에였습니다. 그래서 상들리에 아래 자리에 앉으면, 그 상들리에는 그 식탁의 중앙 장식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눈높이에 매달린 상들리에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 생각이 제게 “나는 이제 기능이 필요 없는 상들리에를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애틀 예술 박물관에 노란색 풍선처럼 보이는 상들리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약 5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초보 유리 불기 작업자가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모양이기는 했지만, 저희는 아주 금방 만들어내었습니다. 저희는 이 작품을 몇 명의 유리 불기 작업자 팀으로 10일 안에 만들어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 무게는 아마 500에서 1,000파운드 정도였으며 이로써 상들리에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패터슨 심스(Patterson Sims), 프리랜서 예술 작가 및 큐레이터: 데일의 경우에 있어 그는 놀랄만한 신중함과 믿을 수 없는 즉흥성이 경이롭게 혼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조형물을 창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 즉 데일을 작품의 창조자로서가 아닌 설치 예술가로서의 관점에서, 그의 걸모습을 통해 그의 작품을 보는 방법이 시도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심지어 데일에게도 새로운 기법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가 자기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됨으로써, 이는 그가 큰 규모의 막대한 조형물로 정말 유명한 예술가가 되도록 변신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전시회 며칠 전, 데일은 이 전시회에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전시회에 다른 요소, 즉 천정을 정말 강조할 그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의 넓은 벽과 바닥 공간이 전시회를 통해 그가 천정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작업대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개의 진정한 바로크 스타일의 상들리에를 실현하는 매달린 작품을 구현하였는데 이로써 상들리에 시리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키아 포레스트(MACCHIA FOREST) 벤 무어(Ben Moore), 유리 예술가: 저희가 독일산 색상을 처음 발견한 것은 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즉, 스테인드글라스 산업을 위주로 생산된 유색 유리를 생산하는 독일 업체들과 함께 저희는 이를 여기 미국에서 스튜디오 유리를 만드는데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희는 사용하는 색상을 직접 만들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색상들은 기본적인 것만 있었지 사용하기에 충분히 많은 색이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갑자기 “짜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 3, 4백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수많은 색을 갑자기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은 굉장한 것임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때 데일은 “나는 이를 정말 잘 이용해서 이 모든 색을 모두 사용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그에게 Macchia라는 개념 또는 구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저는 저희가 독일에서 가져온 사용 가능한 300개의 색상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한 가지 색상을, 가운데에는 반투명 또는 불투명한 흰색을, 그리고 바깥쪽에는 다른 색을 사용했습니다. 이 흰색은 더 큰 질감과 다양성을 위해, 마치 큰 덩어리처럼 칠해졌기 때문에 구름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새로운 시리즈는 어떤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 어머니가 이를 보고 흥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를 ‘홍물’이라고 부르셔서 저는 지금은 이 시리즈를 ‘홍물’이라고 부릅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이 이 시리즈에 맞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절친한 이탈리아인 친구인 이탈리아 스캔가에게 전화해서 “이탈로, 난 이 시리즈에 이름이 필요해. 이 시리즈는 점박이 구름과 바깥쪽 점들이 있어 점박이 모양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탈리아어로 ‘점박이’가 뭐야?”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탈로가 말하기를 “기억이 안 나는데. 이탈리아어 사전을 찾아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전화해서 “‘점박이’는 ‘마키아’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글래스하우스(GLASSHOUSE)

라이언 스미스(Ryan Smith), 3form LightArt 대표이사 겸 예술 감독: 데일이 맨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을 때 그는 “이는 실외 및 실외 전시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전시물의 모든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이 프로젝트의 외부는 글래스하우스가 될 것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녀온 오래된 온실이 나온 멋진 우편엽서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건축물을 사랑하였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지어진 임시 구조물에 대한 그의 유명한 이야기인 Paxton의 Glass Exhibition Pavilion 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온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 이 구조물은 그의 가든이나 유리 전시회 경험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구조물도, 그 공간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항상 그 건축물과 온실, 그리고 모든 실외 경험이 핵심이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라이언 스미스와 오웬 리차즈와 함께 유리로 된 집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정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유리집을 설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제 일생 대부분 동안 유리집 우편엽서를 수집했으며 이 건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입니다. 저는 베니스의 마티스(Matisse) 성당, 파리의 [Sainte] Chapelle, 그리고 Great Crystal Palace of 1851 같은

가장 아름다운 작은 집을 사랑합니다.

오웬 리차즈(Owen Richards), Owen Richards

Architects: 아치형 모양은 19세기부터의 모든 전통적인 온실에 사용된 모양이기 때문에 데일이 적용하고 싶어 했던 아주 관심이 많았던 모양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대칭적 모양은 우리가 한 손에는 Space Needle을 다른 손에는 중심부와 주변의 다른 주요 건축물이 들어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이 특별한 장소에서 가장 좋았던 것의 연구를 통해 진화한 것입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저는 글래스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과 그 내부를 거의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는 그 건물과 그 안에 창조되는 예술 작업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설치될 주로 빨강, 노랑,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된 100피트 길이와 25피트 높이로 된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글래스하우스를 채우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정적인 공간도 남겨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유리 구조물 때문에 표면에 투영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가든(GARDEN)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저희가 설계한 Garden은 약 26,000 평방 피트이며 저는 리처드와 함께 몇 조형물 주변 조경을 설계했습니다. 거기에는 노랑-초록 타워, 빨강 타워, Neodymium Reeds, 그리고 파랑 Fiori도 있습니다 - 유리 작업을 마친 후에 조경을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작업 방법입니다.

리차드 하트리지(Richard Hartlage), AHBL

대표이사: 일단 그들은 Garden에 어떤 조각을 사용할지 결정하고 나서 그들은 어느 색상을 사용할지 협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술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저희가 선택하는 화초 색상과 꽃의 색상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저희는 노란색 Sun을 글래스하우스 전면부에 높이 설치하였고, 여러분이 Garden에서 보시는 빨강 Mexican Hat Tower, 초록 Icicle Tower, 분홍 Polyvitro Tower, 그리고 모든 Reeds도 전시하였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네오디뮴 라벤더 조각, 이들 모두는 핀란드 누타야르비(Nuutajärvi)의 작은 유리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찰리 페리엇(Charlie Parriott), 예술가: 여러분이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유리 Reeds와 다른 많은 황당하게 높고 미친것 같은 형상을 보실 수 있지만, 이 조각들은 특별한 곳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시애틀에는 그런 종류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바로 핀란드의 누타야르비(Nuutajärvi)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이 조각들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공장 천장이 아주 아주 높아서 거의 25피트에 달하고 게다가 거기서 만드는 색상은 전 세계 다른 어디에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홀리의 팀이 핀란드를 자주 방문해서 여러 핀란드 유리 불기 작업자 및 예술 전공 학생과 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유리 공장의 운영자들과 함께 작업한 결과입니다. 또한, 저희는 핀란드에서는 Saguaros라고 부르는 이 Reeds를 만들거나, Seal Pups 또는 다른 여기에 없는 수많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화로나 커다란 오븐에 넣는 이 여러 색상의 모든 유리 조합은 투입 후 두 시간 안에 서서히 식혀지고 프로세스 되어 다른 쪽 출구로 나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보시는 조형물 위에 설치되게 됩니다.

마침말

카일 맥라클런(Kyle MacLachlan): 치홀리 가든 앤 글래스(Chihuly Garden and Glass)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이 데일 치홀리와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미 저희 도시의 교육, 시정 및 문화적 필요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태평양 북서부 예술 기관에 관해서도 알아보실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데일 치홀리(Dale Chihuly): 여기 태평양 북서부에서의 시간을 즐기시고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예술과 문화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